

쏘니 '100골' 쏘다



토트넘 손흥민 썬기골 폭발
121골 차범근 이어 두번째
한국선수 유럽 4대리그 대기록

18세에 유럽 프로축구 1부 리그 데뷔 골을 터뜨린 '특급 유망주'는 8년 만에 유럽 100호 골을 넣으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손흥민은 6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0분 추가골을 폭발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패스를 골대 앞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100호 골을 장식했다.

팀의 3-1 승리에 기여한 골은 지난달 25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이후 나온 이번 시즌 전체 4호, 리그에서는 두 번째 골이다.

또 손흥민이 유럽 1부리그에서 남긴 100번째 골이다. 한국 선수가 유럽 '빅 리그'에서 100골을 돌파한 건 독일에서만 121골을 남긴 차범근 전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유럽 무대 100번째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 유럽 '빅 리그'에서 처음 골맛을 본 것은 2010년 10월이었다.

손흥민은 동북고 재학 시절인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유학 프로그램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V 유소년팀에 합류해 선진 축구를 경험했다.

함부르크는 유학 후 손흥민을 정식으로 영입



했고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데뷔전이던 2010년 10월 31일 쾰른전에서 결승 골이 된 데뷔 골을 터뜨렸다.

만 18세 111일의 나이에 뽑아낸 이 득점은 한국 선수 최연소 유럽 1부 리그 데뷔 골이자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이기도 했다.

2010-2011시즌 14경기에서 3골, 2011-2012시즌 총 30경기에서 5골을 넣은 손흥민은 2012-2013 시즌에 유럽 무대 득점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2012년 9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넣은 헤딩 골이 손흥민의 유럽 10호 골이 됐다.

데뷔골부터 10호 골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렸지만 10호 골부터 20호 골까지는 8개월이 걸렸다. 손흥민은 2013년 5월 호펜하임과의 리그 경기에서 시즌 12호 골이자 유럽 통산 20호 골을 넣었다.

2012-2013시즌 손흥민은 총 34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도달했다.

분데스리가에선 차범근에 이어 두 번째, 유럽 1부 리그를 통틀어서는 설기현, 박지성, 박주영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 2013-2014시즌에 43경기 12골, 2014-2015시즌 42경기 17골을 몰아쳤다.

유럽 50호 골은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긴 직후 나왔다. 분데스리가를 휘저은 손흥민에 유럽 여러 팀이 관심을 보였고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과 손을 잡으며 13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다.

EPL 데뷔전에선 침묵했던 손흥민은 홈 데뷔전이던 2015년 9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를 상대로 토트넘에서의 첫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 데뷔 골이자, 손흥민의 유럽 무대 통산 50호 골이었다.

손흥민은 데뷔 골 직후 같은 경기에서 2호 골까지 넣으며 홈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데뷔 시즌 40경기에서 8골을 넣은 손흥민은 2016-2017시즌엔 무려 21골을 터뜨려 차범근의 유럽 무대 시즌 최다 골(19골) 기록을 넘어섰다.

2017-2018시즌엔 52경기에서 18골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갔다. 2017년 11월 EPL 통산 20호 골을 넣으면서부터는 박지성을 넘어 EPL 정규 리그 아시아 최다 골의 주인공도 됐다.

이번 시즌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평가전을 병행하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 득점 행진이 주춤했던 손흥민은 지난달 25일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에서의 50호 골을 넣었다. 이어 6일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홈 경기에서 유럽 무대 100호 골에 성공했다.

'전설' 차범근의 대기록까지는 21골이 남았다. /연합뉴스



고진영 올 발군의 골퍼 '톱 5'

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23)이 올해 세계 골프계에 두각을 나타낸 선수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6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선수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진영은 이 5명 가운데 4위로 뽑혔으며 여자 선수는 유일하게 명단에 들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 올해 미국에 진출한 고진영은 2월 호주오픈에서 우승을 달성했고 신인상도 받았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로는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가 선정됐고,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브라이슨 디샬보(미국)가 2위에 올랐다.

3위는 10월 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캐머런 챔퍼(미국), 5위는 PGA 투어 2017-2018시즌 신인상 수상자 에런 와이즈(미국)가 각각 차지했다. /연합뉴스



우즈, 내년 프레지던트컵 단장 겸 선수로 출전 시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019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 미국 대표팀 단장과 선수 역할을 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프레지던트컵이 열리는 호주 방문 중인 우즈는 5일 "내가 자격으로 출전 자격을 획득하면 선수로도 될 것"이라며 "아직 대화는 1년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프레지던트컵은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라이더컵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팀에서 유럽은 제외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서 우즈는 2019년 대회 미국 대표팀 단장으로 선임됐다.

단장은 선수 기용 등의 권한을 가지며 프레지던트컵에서 미국 대표팀 단장이 선수 역할을 겸한 것은 1994년 해일 어윈이 유일한 사례다.

미국 대표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8명은 최근 2년간 대회 성적에 따라 선발되고 나머지 4명은 단장 추천 선수로 채워진다.

현재까지 미국 선수 중에서 프레지던트컵 포인트 순위 16위에 머무는 우즈는 "만일 자격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부단장이나 선수들과 상의해서 누구를 추천할지 정해야 한다"며 "만일 내가 추천 선수 후보가 된다면 직접 선수로 될 것인지 아니면 단장 역할만 수행할 것인지도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우즈는 역대 프레지던트컵 통산 성적 24승 1무 15패로 26승의 필 미켈슨(미국)에 이어 미국 선수 중 다승 2위에 올라 있다. 2019년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는 12월 9일부터 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미국 단장은 우즈, 인터내셔널 팀 단장은 에니 엘스(남아공)가 맡았다.

이달 초에 끝난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2018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우즈는 아직 2019년 첫 대회 출전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출전이 확정된 대회는 2019년 2월 제네시스 오픈이지만 1월 초 샌트리 챔피언십 토너먼트 혹은 1월 말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지소연, 세계 여자 축구선수 랭킹 41위

'지메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한 '2018 세계 여자 축구선수 100인'에서 랭킹 41위에 올랐다.

가디언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 세계 여자 축구선수 100인'을 공개하면서 지소연을 41위로 뽑았다.

전날 100-71위까지 먼저 공개한 가디언은 이날 70-41위까지 선수 명단을 공개했고, 지소연의 이름은 이쯤에 등장했다.

지소연은 지난해 34위였지만 올해에는 7계단이 떨어졌다.

가디언은 전·현직 축구선수, 지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72명의 평가단을 통해 2018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100명의 여자 선수를 선정했다.

가디언은 지소연에 대해 "지소연은 2018년에 때때로 기복이 좀 있었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가운데 한명인임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전북 현대 홍정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수비수 홍정호(29)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사랑의열매는 홍정호가 지난 4일 195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6일 전했다. 앞서 축구인으로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와 박지성 협회 유소년전략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홍정호를 포함해 스포츠인은 20명째다.

지난해 형 홍정남(전북)과 함께 500만원을 기탁하며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홍정호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오다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돼 가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젊은 아너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홍정호 선수의 나눔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